

전남대병원 임직원 '의료 발전 기여' 수상 잇따라

김광석 교수·간호부 추정남 과장·오정은 담당 '교육부장관 표창' 윤현주 교수 광주시장 표창·화순 김형석 연구원장 전남지사 표창

전남대학교병원 임직원들이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김광석 공공부원장(성형외과 교수)은 성형외과장, 의공학과장, 공공부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했고, 호남권역 공공보건 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국립대학교병원 운영·발전 유공 포상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간호부 추정남 중앙지원과장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추 과장은 진료 재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멸균 업무 교육과 수행으로 감염을 예방하며 소통을 통한 협업 문화 조성, 진료 재료 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과 오정은 담당자는 지난 2020년부터 경영실적보고서의 재무예산을 작성했으며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병원 경영평가 총괄을 담당해 2021-2022년 2년 연속 1위 및 2023년 A등급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혁신행정 업무 유공 포상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순환기내과 교수)은 공공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한



김광석 추정남 오정은 윤현주 김형석

점을 인정받아 2024년 공공보건 의료 유공 광주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윤 실장은 지역사회 건강상담 및 강좌, 낙후 지역·해의 의료 지원 활동과 이주민들에 대한 진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의료 협력 강화를 이끈 공로다.

화순전남대병원의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은 지역 바이오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화순 바이오메디컬워크숍(HBMW2024·Hwasun BioMedical Workshop)을 주관하며 기초연구 성과와 의료현장에서의 아이디어 산업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화순군과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등 백산산업특구 내 기관과 기업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화순 바이오산업특단지 지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수희 기자

함동주 광주기상청장 취임 "기후위기 시대 적극 대응"



함동주(사진) 제27대 광주 지방기상청장이 20일 취임했다. 함 청장은 강릉대학교 대기환경과를 졸업한 뒤 기상청 예보국 총괄예보관, 국가태풍센터장, 대구지방기상청장 등을 역임했다. 함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노재성 동강대 교수 '한국대학보디빌딩연맹 공로패'



동강대학교는 "최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피트니스 어워드(KFW)K-피어 대의원 총회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노재성(사진)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교수가 한국대학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피트니스 어워드 케이퍼어는 국내·외 피트니스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쓴 기관과 단체, 산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노 교수는 피트니스 분야 특성화 학과인 동강대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퍼스널트레이너(PT전문가), 재활운동전문가 등을 육성하고 있다.

또 지역 생활체육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지역민 대상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다수의 표창도 받았다.

특히 광주지역 대학 관계자로는 유일하게 한국대학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 임원을 맡고 있다. /김다이어 기자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맞이 후원물품 전달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최근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무2동 상가번영회 및 나눔회와 함께 설맞이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후원됐으며,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현택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하는 '세

빛깔'의 설립 취지에 맞게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취약계층을 후원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자지만 따뜻한 우리의 손길이 한파를 녹이는 동행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번 나눔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시비 및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세빛깔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자유로운 사회활동 보장에 힘쓰고 있다. /기수희 기자



광주시의회, 아동돌봄센터 등 복지시설 위문

광주시의회는 2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아동돌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노인요양 시설 등 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장은 이날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위로했다. 신수정 의장과 서용규·채은지 부의장, 각 상

임위원장은 의회를 대표해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8개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수정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내·외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넉넉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하는 설 명절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북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민생경제 상생 발전과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가 20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7개소와 유관단체 46개소 대표,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문인 북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참사 수습·유족 지원 감동' 전 직원 격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어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분청 및 동부지역본부(순천)를 방문해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직원 한명 한명과 악수를 나누며 "지금까지 이런 도정 성과는 도민과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 덕분"이라며 "크고 작은 헌신들을 슬기롭게 이겨낸 도정 직원들이 누구보다 자랑스럽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유가족 지원 과정에서 보여준 직원들의 헌신과 책임감에 감동받았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직원 격려는 김 지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간식을 전달하는 '간식을 부탁해'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간식을 부탁해' 프로그램은 도지사과 직원과 소소한 개인사부터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까지, 편안하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민선 7기(2018년)부터 시작된 직원 소통 프로그램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일자리재단-한국노총 광주본부 '상생 확산' 협약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광주전남수업수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상생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생 서비스 확산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이 포함돼 있어 광주공공배달 활성화 위한 홍보와 이용 장려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을 '제9호 환승배달 캠페이너'로 위촉했다.

윤중해 의장은 "지역 상생과 공정한 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환승배달 캠페인 홍보에 앞장서겠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



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는 "이번 협약은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광주시에 발맞추어 추진한 것으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수 기자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설맞이 '사랑의 라면' 후원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150박스(210만원 상당)를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흥동은 후원자의 뜻에 따라 라면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 경로당 8개소, 취약계층 124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연동, 목원동, 동명동에도 각각 라면 150박스를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목포중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우리 주변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순양 신흥동장은 "고물가와 한파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해 후원해 준 목포중앙새



마을금고에 감사하다"며 "후원 물품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명절마다 나눔을 실천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전남도 주거복지센터 예술인 대상 만원주택 설명회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와 전남문화재단이 손잡고 '명품 전남형 만원주택' 만들기 나선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최근 전남문화재단 임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설명회를 갖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는 전남문화재단이 지난해 추진한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도권 청년 예술인들이 전남의 매력에 빠져 지역 정착을 고려하고 있으나 주거 문제로 주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제공한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과 운영, 시설물 관리, 전세사기 피해 상담·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주거복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곽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은 "문화예술인의 입주는 전남형 만원주택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인사
전남도 ◇4급 승진
▲성미숙 감사관실 청렴지원관 직무대리 ▲이건창 목포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본사소남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